

# 제주 방언의 동사류 접미사 연구

— 종지법의 굴절 접미사를 중심으로 —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75年 11月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康 貞 姬

康貞姬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康 允 浩



審査委員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A. 서설	1
B. 연구목적 및 범위	3
C. 연구 방법	4
II. 형태소 분석의 제문제	8
A. 음운론적 조건하의 이형태	9
B. 형태론적 조건하의 이형태	10
C. 수의적 변화에 의한 이형태	11
III. 접사 첨가 과정	12
IV. 제주 방언의 동사류 어간에 배합된 굴절 접미사 순위 및 형태소	15
A. 한국어 동사류 어간에 배합된 접미사 순위 및 기능과 형태소	15
B. 제주 방언의 동사류 어간에 배합된 접미사 순위 및 기능	17
C. 자료의 비교 검토	21
D. 제주 방언의 동사류 어간에 배합된 굴절 접미사의 형태소 분석	22
V. 결론	44

부 목	47
참고 문헌	55
영문초록	57

## 논 문 개 요

언어는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가족 부락 도시 등 사회적 구분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한 개의 언어 형태가 지리적 내지 사회적 차이 때문에 달리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언어의 역사적 변화는 지리적 분포와 결부되어, 독특한 지역을 형성한다. 초점지역, 전이지역, 외연지역이 그것이며, 그외에 회랑형 지역을 들 수 있다. 언어특질의 지리적 분포에는 역사적 암시가 내포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그 특질의 초기 상태에 관한 추측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변화, 역사적인 변화와 지역적인 변화로 인하여 형성된 특정지역의 언어를 방언이라 한다.

방언 연구는,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와 관계없이 독립해서 연구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독립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한 언어형태 구조에 대한 연구가 형태소 분석에서 출발하듯이, 방언의 형태 구조에 대한 연구도 그러하다. 형태소 분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단일 형태소의 이형태를 구분하는 일이다. 이형태는 주어지는 조건이 음운론적 조건이나 형태론적 조건, 또는 수의변화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한다. 한 개의 형태소가 음운론적 조건 내지 형태론적 조건을 받아 변화하는 현상을 형태 음운 변화라 한다. 한 언어 형태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동사<sup>를</sup>나 형용사<sup>를</sup>는 일정한 접사 첨가 과정에 의하여 형성된다. 접사 첨가 과정은 어근이

나 어간에 접사가 붙어서 문법상의 변동이나, 의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형태 생성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 방언권 중에서 지리적 분포를 볼 때, 가장 외곽적 지역에 해당하는 제주 방언의 동사류 종지법에 관한 것이다. 제주 방언의 동사류 어간에 배합되는 여러 접미사의 형태소와 공통어의 그것과를 비교 검토하는 방법으로 시도한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공통어에서 찾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독특한 형태소들이었다.

태 접미사의 {-ci-}, 시간 접미사의 형태소 중 동작이나 행동이 지속되는, 즉 미완료 시간의 형태소로 {-m-}이 보이며, 상태 접미사로 고어형의 잔존으로 보이는 {-si-}가 있으며, 의지, 추측을 나타내는 {-kh-} {-n-}과 상 접미사중, 회상 형태소인 {a-} /a- ʔ- /가 그것이며, 종지 접미사 중, 의분형 형태소로 공통어에서 쓰이지 않는 {-ta}가 보인다. 가장 특이한 형태로는 종지 접미사 다음에 덧붙는 접사라 할 것이다. {-massɨm}, {-yaɕ}, {-ke}, {-i} 등이 그것이다.

## I. 서 론

### A. 서 설

언어는 개인의 언어습관에 따라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가족, 부락 도시 등 사회적 세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동일 사회내에서도 사회적인 계급의 차이와 직업과 문화적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담화에서 여러가지 변화를 보여 준다. 이러한 변화는 임의적이라기 보다는 지역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영향에 의한다. 우리는 한개의 언어 형태가 지리적 차이 내지 사회적 차이 때문에 달리 사용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지역적 변화는 단지 어휘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역적 변화는 음소를 비롯한 언어 구조 전반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인구 형성의 역사가 오래 되고 그 유동성이 적은 국가에서도 심하게 나타난다. 언어현상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연구를 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개의 특정 음성이나 형태가 특정지역이나 지점에 집중되어 있는 밀접한 지역 안에 나타날 때 형성되는 초점지역<sup>1</sup>과 일정한 특질을 가진 언어형태가 이에 대항하는 특질없이 일정한 지역에 나타날 때 형성되는 등급지역 또는 전이지역 및 통신망이 두절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어떤 특질이 나타날 경우에 형성되는 외연지역이 그것이다.

---

<sup>1</sup> R.A.Hall, Jr. (1963), 「言語学序說」, 강 윤호(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p. 298.

외연지역은 반드시 지리상 변두리 지역에만 한하지 않는다. 넓은 도시지역 가운데에서도 언어섬 모양으로 형성되어 지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지 않으면서, 단순히 무의식적 내지 의식적인 고립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산악 지역이나 여러 도서 지역에 따라 고립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 용이한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통해서 음성, 낱말을 차용하여 변두리 지역을 분할하여 길고 가느다란 회랑형 지역을 형성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 언어 특질의 지리적 분포에는 역사적 암시가 내포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그 특질의 초기상태에 관한 추측을 할 수 있다. 한 특질이 오직 외곽지역에만 현재 분명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그 특질이 이전에는 널리 분포된 바 있었던 특질이며, 그 지역 전반에 걸쳐 사용된 적이 있었던 특질이었음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특질을 “유물” 또는 “고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속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곽적인 지점이 언어 방사의 중심부에 아주 가까운 지점에서 현대어화 하는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언어는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언어의 여러 특질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정된 언어사회 안에는 통달의 밀도를 이루는 얼마간의 선이 있다.

곧 특정언어에 대한 특정개인의 언어가 있다. 대개의 경우, 통달의 밀도는 정치적, 경제적 요소에 좌우된다. 사람들은 언어상의 유행을 정치의 중심지, 지방행정의 중심지 또는 상품거래의 중심지에서 찾는다

이론상 통달밀도가 가장 큰 개인 사이의 언어는 서로 영향을 입게 되고 따라서 언어면에 많은 유사성이 나타날 것 같으나 실제로는 사회적 권위의식 따위의 여러 요소가 개입되어 작용함으로써 자주 교



제하는 사람들 보다도 사회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이른바 저명인사들의 언어형태의 영향을 더 받게 된다.

이상과 같이 지역적인 변화, 역사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형성된 특정지역의 언어를 방언(dialect)이라 부른다.

본 연구는 한국어 방언권 중에서, 지리적 분포로 볼 때, 가장 외곽적 지역에 해당되는 제주 방언의 언어 형태의 일면인, 동사류<sup>2</sup> 종지법에 해당되는 굴절 접미사를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특정지역의 방언인 제주 방언의 전 언어형태를 살펴 볼 수 있는 기본 작업의 한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국어의 지역적인 언어 변화의 양상을 검토, 비교하는 좀 더 넓은 작업의 시초가 되리라고 믿는다.

## B. 연구 목적 및 범위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에 관한 인식이 차차 높아가고 있는 한편, 학교 교육에서의 표준어 보급이 활발해짐에 따라 제주도 고유의 방언이 점차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주도는 하나의 독특한 방언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어의 이러한 변질과정은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그 확실한 전모가 밝혀

---

<sup>2</sup> G.J.Ramstedt(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pp. 70-128는 한국어의 동사류를 크게 Verba Finita, Converbialia, Nomina Verbalia 등 셋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동사는 문장을 종결시켜 주는 Verba Finita만 그 대상이 된다.

질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제주 방언속에 나타나는 동사류어간에 배합되는 굴절 접미사의 구조를 조사, 분석, 종합하려는 것이다. 연구 진행에 있어서 연구자는 제주방언의 동사류어간에 배합되는 굴절 접미사의 양상과 공통어의 그것과의 대응관계를 비교 검토하는 방법을 통하여 시도하였다.

### C. 연구방법

본 연구는 H.A.Gleason, jr.의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sup>3</sup>에 언급된 이론을 근거로 하였으나 박 창해 교수의 「한국어 구조론 3」<sup>4</sup>에 힘 입은 바가 크다. 또한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으로 삼은 제주 방언의 토착화자로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도중 그것들을 보충 수정하였다.

#### 1. 자료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 대상으로 삼은 동사류와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 가) 질문지 작성

한국어 동사류어간에 배합되는 굴절 접미사의 순위에 따른

---

<sup>3</sup> H.A.Gleason, jr. (1964), "Some types of Inflection,"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rev.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p. 111-127.

<sup>4</sup> 박 창해 (1964), 「한국어 구조론 3」 (서울: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배합 유형에 맞추어, 공통어로 된 문장을 120 항목을 작성, 나열한 후 그 공통어에 해당되는 제주 방언을 표기할 수 있도록 난을 비워 두었다.<sup>5</sup>

#### 나) 조사방법

녹음기에 의한 녹음이외에 피조사자와의 면접에 의한 직접 면담을 통해서 녹음 내용을 보충하였고,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sup>6</sup>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질문 내용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주 방언으로 표기하게 하였다.

#### 다) 조사시기

1차 - 1970년 7월 21일~8월 10일

2차 - 1975년 7월 29일~8월 12일

#### 라) 조사 지역 및 대상

##### ① 북군 구좌면

세화리 ( 조 대수 : 남 , 36 )

송당리 ( 오 계선 : 여 , 56 )

##### ② 북군 한경면

고산리 ( 고씨 할머니 : 76, 김 애기 할머니 : 68 )

신창리 ( 고덕수 : 남 , 72 )

##### ③ 남군 성산면

시흥리 ( 현 순덕 : 여 , 12, 현 재수 : 남 , 6

양 춘자 : 여 , 38 )

<sup>5</sup> 별표난 참조

<sup>6</sup> 안덕중학교 ( 4명 ), 포선중학교 ( 5명 ), 세화중학교 ( 2명 )

수산리 (고 진권 : 남 , 26 )

신양리 (홍 남선 : 여 , 53 , 홍 윤배 : 남 , 16 )

④ 남군 표선면

표선리 (강 윤덕 : 남 , 82 , 최 익환 : 남 , 80 )

세화1리 (현 옥희 : 여 , 12 )

토산1리 (김 부생 : 남 , 61 )

성읍리 (강 인생 : 여 , 72 )

가시리 (최노인 : 여 , 67 )

⑤ 남군 증문면

강정리 (강 애자 : 여 , 40 )

도순리 ( 50 대의 부인 2명 )

증문리 (고 경지 : 남 , 7 , 고 경모 : 남 , 9 )

⑥ 남군 안덕면

감산리 (노인 3명 )

화순리 (강 복자 : 여 , 21 )

서광리 (강 씨 : 남 , 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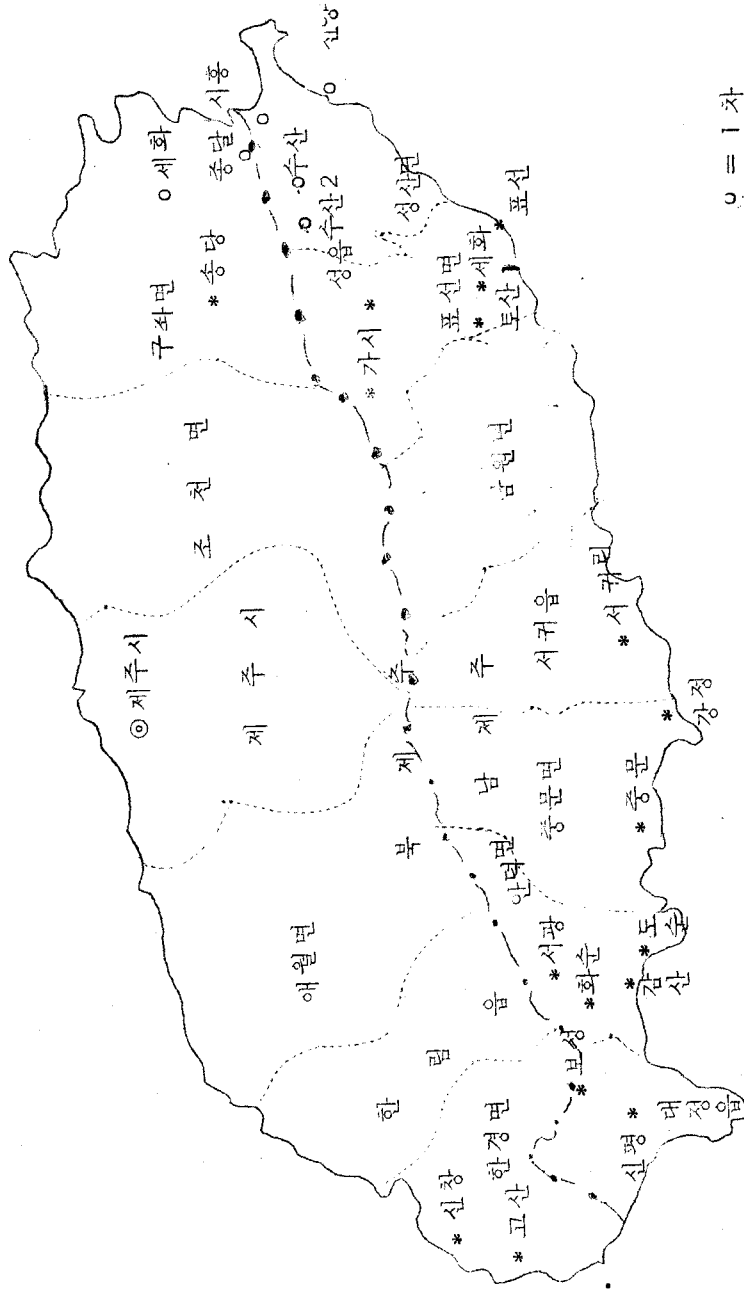
⑦ 남군 매정읍

보성리 (부 양순 : 여 , 56 , 김 순자 : 여 , 16

김 순이 : 여 , 50 )

신평리 (김 원준 : 남 , 79 )

조사지역 : 제주도



○ = 1차

\* = 2차

## II. 형태소 분석에 따르는 제문제

한 언어의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이며 편리한 방법은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하고 그 형태소를 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석하려고 수집해 놓은 언어자료인 집성체(Corpus)의 비교, 검토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집성체 속에서 분절(Segment), 곧 단일 형태소로 나타나는 부분과, 이러한 분절들을 여러 형태소로 구분한 다음, 형태 구조적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단일 형태소의 이형태로 분류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분석된 두 요소가

- 1) 동일한 의미(Common range of meaning)
- 2) 음운론적 조건이나 형태론적 조건이 주어진 상보적 분포관계(Complementary distribution)에 있고
- 3) 병행구조(Parallel formations)에서 나타난다면 이들을 단일 형태소의 이형태로 취급할 수 있다.<sup>7</sup> 만일 두 요소가 같은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들은 상보적 분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형태란 어떤 주어진 환경속에서 나타나는 형태소의 변종(a Variant of morpheme)으로 그것이 놓여지는 환경 조건에 따라 형태(form)가 달라진다. 이와 같이 이형태들이 어느 한정된 조건하에서만 나타날 때 이것을 조건적(Conditioned)이라 한다. 주어지는 조건에는,

---

<sup>7</sup>Gleason, Jr. (1964), p. 88.

1) 음성적 특질에 의한 음운론적 조건 ( Phonologically Conditioned ) 과,

2) 여러 형태소가 문장이나 단어를 이루고 있을 때 특정 형태소에  
만 올 수 있는 형태소 자체, 즉 형태적 배치를 달리함으로 인한 형태론적 조건 ( Morphologically Conditioned ) ,

3) 음운적 변동이 화자나 방언에 따라 달라지는, 수의적 변화  
( free variation, optional variation ) 가 있다.

이와 같이 특정조건에 의해서 한 형태소가 변화하는 현상을 형태음운론적 변화 ( morphophonemic Change ) 라 한다.

#### A. 음운론적 조건하의 이형태

조건이 되는 요소가 음운의 음성적 특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형태를 말한다. 동화, 이화, 전위 ( metathesis ) 등이 이에 속하며 음운의 첨가나 탈락도 해당된다.

##### 1. 동 화

형태 음운론적 변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동화된 음이 조건을 준 음 뒤에 오는 진행 ( progressive ) 과 동화된 음이 조건을 준 음 뒤에 오는 역행 ( reprogressive ) 이 있다. Greek 에 있어서

$$/p^hleb-/+/-s/ \rightarrow /p^hleps/$$

로 되는 것과 같이 바로 이웃한 음에 의하여 조건이 주어지는 인접동화 ( Contiguous assimilation ) 와 한 개 이상의 음운이 동화를 이루는 음 사이에 위치하는 비인접동화 ( noncontiguous assimilation )

가 있다. 비인접 동화의 대표적인 형태로 모음조화를 들 수 있다. 동화작용중 가장 복잡한 형태로는 구개음화 (palatalization) 을 들 수 있다. 이 현상은 이태리어의

$$/m\acute{s}naki/ \rightarrow /m\acute{o}naei/$$

$$/l\acute{e}gge/ \rightarrow /l\acute{e}jje/$$

로 되듯이 연구개 자음이나 치음이 고 전설 모음이나 반모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2. 이 화

동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한국어의

$$\text{불} > \text{북} ( /Pup/ \rightarrow /Puk/ )$$

에서 조건을 받은  $/-p/$ 가  $/-k/$ 로 되는 것처럼 다른 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 3. 전 위

일반적으로  $abcd > acbd$ 로 되는 것과 같이 음운의 변동은 없고 다만 음운의 배열 순서가 자리를 바꾸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하더시니이다 > 하시더니이다가 그 예이다.

### B. 형태론적 조건하의 이형태

문맥을 이루는 형태소나 하나의 특정 형태소에 따라 결정되는 이형태이다. 영어의 ox의 복수는 oxen /aksin/이다.  $/-in/$ 은 어근 /aks/에만 사용되는 복수형태소의 이형태이다. 한국어의 명



령형 접미사로서 「오다」의 어간에는 「-너라」만 붙 수 있고 「가다」의 어간에는 「-거라」등이 올 수 있는 것으로 특수형태소에만 국한되어 붙는 형태소 자체로 설명할 수 있는 이형태이다.

#### C. 수의적 변화에 의한 이형태

둘 이상의 형태소가 동일한 음성 환경에 나타나서 서로 엇바꾸어도 말의 의미에 차이가 생기지 않고 문법적 기능도 같은 경우의 이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언어 습관이나 방언에 나타난다

### Ⅲ. 접사첨가 과정

접사 첨가과정이란 어근 ( root ) 이나 어간 ( stem ) 에 접사 ( affixes ) 가 배합하여 문법상의 변동이나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는 형태 생성 과정을 말한다.

접사는 종속형태 ( bound form ) 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어근이나 한 개 이상의 다른 형태소로 구성된 구조에 직접 붙는다. 이들을 어간이라 한다. 어근이란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언어 형태이며, 어간이란 접사가 붙을 수 있는 형태소나 형태소의 배합체이다. 따라서 어근이 단어의 중심을 이룬다면 접사는 이에 대하여 종속적이다.

언어에 따라서 일정한 접사들이 어간을 형성하는 것을 첫째 기능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어간은 어근이 될 수 없으나 어근은 어간이 될 수 있다. 접사는 위치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어근이나 어간 바로 앞에 오는 접사, 곧 접두사 ( prefixes ) 는 일반적으로 한 개로 되어 있고 어근이나 어간 사이에 끼는 접요소 ( infixes ) , 어근이나 어간 뒤에 오는 접사, 곧 접미사 ( suffixes ) 는 경우에 따라서 한개 이상 여러 개가 배합할 수 있다. 그밖에 접미사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영어의 음절 핵음의 차이 ( difference of syllabale nucleas ) 를 들 수 있다.<sup>8</sup> 접사를 다시 기능별로 구분하면 파생 접사

---

<sup>8</sup> 앞 글, p.74.

(derivational affixes)와 굴절 접사(inflexional affixes)로 나눌 수 있다.

파생접사는 접사 첨가상의 위치에 따라 파생접미사(derivational suffixes) 및 굴절접미사(inflexional suffixes)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어간 형성(stem formation) 방법에는 어근이나 어간에 파생 접사를 붙여서 품사를 바꾸거나, 기본 의미에 또 다른 의미를 첨가시키는 것과, 어근이나 어간 뒤에 굴절 접미사를 배합시켜서 단어의 문법적 기능을 첨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밖에, 굴절 접미사를 배합시키지 않고서도 하나의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대체(replacive)시켜서 굴절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테면, 영어의

{D} found = {P} find + ou ← (i)

/fáwnd/ = /fáynd/ + /aw ← (ay)/<sup>9</sup>

와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형태소를 배합 분석할 때 중요한 것으로는 접사의 순위(order)를 들 수 있다. 이 순위에는 같은 순위에 위치하는 형태소가 있는 반면에, 서로 배타적으로 일어나는 다른 순위가 있다. 가령 Congo Swahili의 방언 Elesabethville어 중,

Ninasema " I speak "

Wunasema " You speak "

Ninamupika " I hit him " <sup>10</sup>

<sup>9</sup> {D} =과거 형태소 {P} =현재 형태소, /ow ← (ay) /에서 ←은 대체 방향을 나타내며 " /ay /를 /ow /로 읽는다 " 라고 읽어야 한다.

<sup>10</sup> E.A. Nida(1964),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 12, p. 84.

을 살펴보면 주어에 해당하는 Ni- "I"와 Wu- "you"는 같은 순위에 나타나지만, Ni- "I"와 현재형인 -Na-는 다른 순위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순위는 한국어의 굴절 접미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순위란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연속체에서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서로 배타적인 형태소의 분류"<sup>11</sup>로서 이는 특정 형태의 위치상의 배합을 규제하는 규칙이라기 보다는 위치상의 배합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접사 순위를 결정,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

<sup>11</sup> Gleason, Jr. (1964), p. 112.

## IV. 제주 방언의 동사류 어간에 배합되는 접미사 순위 및 기능과 형태소

### A. 한국어 동사류 어간에 배합되는 접미사 순위 및 기능과 형태소

제주 방언의 동사류 어간에 배합되는 접미사 순위와 그 형태소를 분석하기 이전에 박창해교수(1964)에 언급된 한국어 동사류 어간에 배합되는 굴절 접미사와 기능 및 그 형태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1 접미사 (강조 접미사, emphatic suffix)

어간의 뜻을 강조할 때 쓰이며 특히 동작 동사의 어간에 덧붙는다. 형태소에는 {-ttɕli-}, {-thɕli-}, {-chi-}가 있다.

#### 2. -2 접미사 (태 접미사, voice suffix)

동작 동사류 어간이나 '어간+1'에 덧붙여서 배합하면 동작 동사류의 태를 나타내게 된다. 형태소로 {-i-}, {-hi-}, {-li-}, {-u-}, {-hu-}를 들 수 있다.

#### 3. -3 접미사 (존대 접미사, honorific suffix)

화자가 자기의 표현 중에서 그 어떤 인물에 대하여 존대의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쓰는 것으로 {-si-}, {-s-} 등이 있다.

#### 4. -4 접미사 (시제 접미사, tense suffix)

<동사류 어간>, 또는 <동사류의 어간+(1)+(2)+(3)>에 덧붙을 수 있다. 시제를 현재, 완료, 추정, 대완료, 완료추정, 추정완료로

구분한다. 형태소로 {-ass-} /-ess-, -yæss-, -ss-/ , {-kess-} {-ϕ-} 등이 있다.

#### 5. -5 접미사 (형식 접미사, style suffix)

{-p-} 는 발화인의 표현 형식에 예의를 갖추었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이므로 이를 겹쳐 접미사라고 볼 수 있다. {-ϕ-} 는 {-p-} 처럼 표현 형식에 예의를 갖추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접미사를 형식 접미사라 한다.

#### 6. -6 접미사 (시상 접미사, aspect suffix)

이들은 각각 제 -5 접미사와 배합된 채, -7 접미사에 이어진다. 이들은 다 시상의 직능을 함으로 시상 접미사라 부른다. 진행, 경험, 회의, 추상, 추정, 예기, 존재, 시상 접미사로 분류하며, 형태소로 {-n-} /-ni-, -ϕ-/ , {-t-} /-t -, -ti-, -to-, -ϕ-/ , {-c-} /-ci- -ϕ-/ , {-s-} /-si-, -ϕ-/ , {-k-} /-k-/ , {-li-} /-li-, -ϕ- / , {-m-} , {-ϕ-} , {-i-} 등이 있다.

#### 7. -7 접미사 (종결 접미사)

형과 표현 형식에 따라 이형태를 가진다. 동사류 어간, 또는 동사류 어간 다음에 덧붙는 접미사에 덧붙어서 그 기능과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들은 발화인이 표현한 말의 맨끝에 놓이는 것이므로 종결 접미사라 하고 서술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으로 나눈다. 형태소로 {-ka} , {-u} /-o, -ayo / , {-a} , {-i} , {-ta} {-e} , {-ca} {-la} 등이 있다.

이상에서 한국어 동사류 어간에 배합되는 굴절 접미사는 모두 7 순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제주 방언의 그것에 나타

나는 굴절 접미사 배합 순위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B. 제주 방언의 동사류 어간에 배합된 접미사 순위 및 기능

### 1. -1 접미사 (태 접미사)<sup>12</sup>

동사류 어간에 직접 연결되는 접미사로 두 가지 형태 -피동태와 사역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분하지 않겠다.

### 2. -2 접미사 (주체존대 접미사)

기능은 박창해 교수의 -3 접미사와 동일하며 동사류 어간 다음에 붙는 접미사에 덧붙는 접미사로 제주 방언에는 원래 쓰이지 않던 접미사였으나 표준어의 영향을 받아 현재 활발히 사용되는 접미사이다.

---

<sup>12</sup> 김 석득 (1971), 「국어 구조론: 한국어의 형태, 통사 구조론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 14, "국어 접사 형태소 중 접두 형태소 PF와 동사류 제일 접미사 형태소 SF<sub>1</sub> (강조 형태소: { -뜨리- } { -치- } ...)는 파생 접사요, 동사류 제삼 접미사 형태소에서 제팔 접미사 형태소 SF<sub>2</sub> (사동 및 피동 접미사)는 ... 파생이요, ... 굴곡적이다. 이와 같이 SF<sub>2</sub>는 파생과 굴곡의 양면적 성질을 띤다. 그러나 파생적 성질이 월등하여 편이상 SF<sub>2</sub>를 "굴곡, 파생 접미사 (Inflectional-derivational suffix)"라 해둔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접미사를 굴절 접미사의 범주에 넣어 연구하였다.

## 3. -3 접미사(시간 접미사)

독립해서 동사류 어간에 직접 붙거나 -4 접미사와 배합하여 동사류 어간에 붙는다. 자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로의 분류보다도 동작주나 화자를 중심으로 한 동작의 완료 미완료<sup>13</sup>로 크게 양분된다. -4 접미사와 -7 접미사와 배합되어 더욱 확실한 시간적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완료 지속과 미완료 지속으로 행위 구분할 수 있다. 화자나 동작주의 앞으로 일어날 행동에는 -5 접미사가 맡고 있다.

4. -4 접미사(상태 접미사)<sup>14</sup>

동사류 어간에 직접 연결될 수 없고 반드시 -3 접미사와

<sup>13</sup> W. E. Bull(1968), Time, Tense, and the Verb, 3rd ed., UCPL, Vol. 19(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135: "... time is something conceived through the observation of events, and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as just defined, are not to be indentified with time.... Thus an event which is simultaneous with the act of speaking(the act of reporting the event) is said to be imperfect. An event which is anterior to the act of speaking is obviously, perfected.... anterior, past, and perfected may all describe the same order relation to the exes.'라 하여 시간상의 imperfect와 perfected의 개념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

<sup>14</sup> 제주 방언 접미사 중 가장 독특한 접미사이다. 시간 접미사와 배합되어 동작의 진행 상태를 표시한다. '—고 있다'의 /—있—/에 해당하는 본 접미사는 학교 문법에서 사용하는 보조 형용



배합하여 -5, -6, -7 접미사로 이어지는 제주 방언의 독특한 형태의 접미사이다.

#### 5. -5 접미사 (의지/추측 접미사)

비교 대상인 박창해 교수의 -4 접미사에 포함된 {-kess-}에 해당하는 접미사로 제주 방언에서는 독립적인 순위를 차지한다. 미완료 진행상을 나타낼 경우 -3 접미사에 직접 붙을 수 없고 반드시 -4 접미사와 배합된다. 이러한 배합 형태가 화자 자신의 행동에 관한 발화일 때는, 의지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 특히 -7 접미사와 배합되면 제 1, 2, 3 인칭의 행동에 대한 추측 및 회상을 나타낸다.

---

← 사의 기능 보다는 굴절 접미사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하다. 왜냐하면 제주 방언의 동사류 어간에 붙는 -1, -2, -3 접미사가 굴절되고 이 접미사 없이 동사류 어간에 붙는 어떠한 접미사로도 동작의 상태를 측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 접미사의 형태소는 15세기 국어의 존재를 나타내는 발화, '이시다 > 이시다'의 변천된 형태가 아닌가 한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발화가 제주 방언 중에 '계세요?'라는 공통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수까?', '시우까?'라는 형태가 있다. 이 형태는 '이시다'의 /-시-/가 /-수-/로 모음이 대치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발화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로서, 제주 방언에서는 동사의 접미사가 되어 다른 순위의 접미사와 배합하여 동작의 상태를 보충해 주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6. -6 접미사 (겸양 접미사)<sup>15</sup>

-3, -4, -5 접미사에 자유로이 붙을 수 있는 접미사로서 상대편의 나이나 지위가 화자 자신보다 위일 때 예의를 갖추어 표현하는 접미사로서 동사류 어간 바로 뒤에 연결되는 경우는 -8 접미사가 명령형일 때만 가능하다. 이 경우의 형태소는 { - p - }만이 가능하고 { - u - }는 반드시 -4 접미사 { -si- }를 동반해서 -8 접미사에 이어진다.

## 7. -7 접미사 (회상 접미사)

동사류 어간 바로 뒤에 붙거나 -3, -4, -5, -6 접미사와 배합하여 동사류 어간에 붙는다. 제주 방언에는 존재상과 회상상이 분석된다.

## 8. -8 접미사 (송지 접미사)

동사류 어간 바로 뒤에 붙거나, 어떤 순위의 접미사와도 배합하여 동사류 어간에 덧붙는다. 여러 순위의 접미사 중 가장 많은

<sup>15</sup> 在寬 (1958), "「습따위」 敬讓詞散考," 「경북대논문집」, No. 2 (대구: 경북대학 출판부), p. 7 "…尊卑關係, … 둘째 卑者의 把握 … 兩者의 尊卑關係를 話者가 認識하여 規定함으로써, 敬讓表現은 비로소 성립...."

李 崇寧 (1970), 「中世國語 文法」 (서울: 을유문화사), p. 307 을 보면 15세기 겸양법 -습-의 쓰임을 청자가 화자보다 높으면 행동, 상대 표현에 끼우고, 이야기 주체의 인물보다 화자가 낮을 때도 끼운다고 하였다. 현대어에서 나타나는 { -ㅁ- }은 바로 이 { -습- }이 변천된 형태소로, 연구자도 존재 접미사로 하지 않고 이들 학설을 따라 겸양 접미사라 하였다.

이 형태를 가진다. 표현 형식에 따라 서술형, 의문형, 권유형, 명령형으로 나눈다.

#### 9. -9 접미사 (첨사)

종지 접미사인 -8 접미사에 덧붙여 화자의 언어표현을 보다 섬세하게 해 준다. 제주 방언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한 형태 소들이 있다.

#### C. 자료의 비교 검토

한국어 동사류에 배합되는 굴절 접미사의 위치적 배합 순위와 제주 방언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한국어 동사류 어간에 붙을 수 있는 첫 순위의 강조 접미사가 보이지 않는다. 제주 방언에서는 강조의 기능을 발화의 억양과 -9 접미사인 첨사가 맡고 있다.

2) 시간 접미사에서는 화자나 동작주를 중심으로 한 완료와 미완료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보일 뿐이다.

3) -4 접미사인 상태 접미사가 나타난다. 직접 동사류 어간에 붙지 못하고 반드시 -3 시간 접미사와 배합되어 붙어 동작의 상태를 나타낸다.

4) -9 접미사인 첨사가 덧붙여 언어 표현 형식을 보다 섬세하게 한다.

D. 제주 방언의 동사류 어간에 배합된 굴절 접미사의 형태소 분석

앞에서 언급된 형태소 분석에 따른 제반문제와 접사 첨가 과정의 여러 문제에 입각하여, 제주 방언의 동사류의 형태소 배합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1 접미사 (태 접미사)

1)  $sm + sx_1 + sx_6 + sx_8$  ..... {-u-}<sup>16</sup>  
 kke-u-p-sə

2)  $sm + sx_1 + sx_3 + sx_4 + sx_6 + sx_8$  ..... {-chi-}  
~~hi~~-chi-əm-s-u-kke

3)  $sm + sx_1 + sx_5 + sx_6 + sx_8$  ..... {-li-}  
 kul-li-kh-u-ta}

4)  $sm + sx_1 + sx_3 + sx_4 + sx_6 + sx_8$ <sup>17</sup> ..... {-i-}  
 po-i-əm-s-~~u-kke~~<sup>18</sup>

5)  $sm + sx_1 + sx_3 + sx_4 + sx_6 + sx_8$  ..... {-ku-}  
 so-ku-əm-s-u-ta

6)  $sm + sx_1 + sx_8$  ..... {-ci-} / -ci-, -cc-/  
 ac-ci-la

<sup>16</sup> { } = 기본 형태소 표기.

<sup>17</sup>  $s_m = stem$ ,  $s_x = suffix$  1 (-1 접미사),  $s_{x_3} = -3$  접미사  
 $s_{x_4} = -4$  접미사,  $s_{x_5} = -5$  접미사,  $s_{x_6} = -6$  접미사,  $s_{x_8} = -8$  접미사

<sup>18</sup> 형태소 표기는 음소표기를 따랐으며, ㅇ음은 . . .로, 반도음은 /y. w/로 표기하였다.

7) sm + sx<sub>1</sub> + sx<sub>3</sub> + sx<sub>8</sub>

us-ci-sm-cə

8) sm + sx<sub>1</sub> + (sx<sub>2</sub>)<sup>19</sup> + sx<sub>3</sub> + \*sx<sub>5</sub> + sx<sub>6</sub> + sx<sub>7</sub> + sx<sub>8</sub>

ip-ci-(si)-na-kh-ip-te-ke

2) 에서 공통어의 /-li-/가 /-chi-/로 발음되는 것은 /-l-/가 /-ch-/의 자리로, 곧 한국어 자음 체계 중 치경음 (alveor sound) 이 치경-경구개음 (alveo-palatal sound) 으로 조음점이 이동된 현상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6), 8) 에서도 /-h-/가 /-c-~cc-/로, 성문음 (glattal sound) 이 치경-경구개음으로 조음점을 이동시켰으며 7)에서는 /-k-/가 /-c- -cc-/로 변환 현상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본도<sup>20</sup> 주민들의 언어 습관에 의한 것인지, 다른 조건에 의한 것인지 더 연구해 볼 문제이다.

이상에서 분석된 태 접미사의 형태소를 종합하면 {-u-}, {-li-}, {-ci-}, {-chi-}, {-i-}, {-ku-} 등을 얻을 수 있다. 각 형태소끼리는 서로 형태론적 조건을 받는 상보적 분포관계에 있다.

## 2. -2 접미사 (주체 존대 접미사)

1) sm + (sx<sub>2</sub>) + sx<sub>5</sub> + sx<sub>6</sub> + sx<sub>8</sub> ..... {-si-}

ka-(si)-kh-u-kwa

동작 주체를 높이는 {-si-} 는 본도 방언에는 원래 없었던 형태소

<sup>19</sup> ( ) 은 형태소 배합시 주로 나타날 경우를 뜻한다.

<sup>20</sup> 제주도를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주 방언도 본도 방언으로 통일해서 지칭하기로 한다.

로서 표준어 보급이 이루어진 이후, 최근 젊은층에서 많이 쓰고 있다.

-4 상태 접미사의 형태소 {-si-}와는 동음이 형태 (homophonous morphemes) 관계에 있다.

3. -3 접미사 (시간 접미사)

1) 완료 시간

① sm + sx<sub>3</sub> + sx<sub>8</sub> ..... {-ko-}

ka-ko-la

공통어의 {-ss-}에 해당하는 형태소로 한자나 동작주의 이미 끝난 행동을 나타내는 본도 특유의 완료 형태소이다.

② sm + sx<sub>3</sub> + sx<sub>8</sub> ..... {-n-} /-an- ㉠ -an- ㉡ -n- /

o-la-n-ta

po-an-ta

mək-ən-ta

/- n - ㉠ - an- ㉡ - n- /은 의문문에만 사용되는데, 화자의 상대방, 즉 동작주의 행동의 완료를 알아 보는 역할을 한다. -4 접미사 뒤에 오는 경우의 /- n - ㉠ - an- ㉡ - n- /과는 형태론적 조건을 받는 동음이 형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미완료 형태소인 /- a- ㉠ - a- ㉡ - m- /과 대응하여서 사용한다.

③ sm + sx<sub>3</sub> + sx<sub>8</sub> ..... {-ss-} /-ss- ㉠ -ass- ㉡ -ss- ㉢ -ss- ㉣ -ss- /

ka-ss-ccə

po-ass-cə

kəl-əss-ccu

$$\textcircled{4} \quad s_m + s_{x_3} + s_{x_4} + s_{x_6} + s_{x_8} \dots \{-\phi-\}$$

ka -  $\phi$  - s - u - ta

④의 /- $\phi$ -/는 과거 또는 완료시간을 나타내는 /-ss-/가 탈락된 형태이다 /-ss-/가 탈락되는 경우는, -3 시간 접미사와 -4 상태 접미사사의 연속체일때 뿐으로 /-ss- $\phi$ -/은 형태적 배합을 달리함에 일어나는 형태론적 조건하의 이형태이다.

간혹 /kasuta/를 /ka~~s~~ssuta/로 실현되기는 하나, 소수 젊은 층이나 지식층에서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뿐, 아직도 대다수의 본토 주민들은 ④의 경우에 {-ss-}을 탈락시킨다.

2) 미완료 시간

$$\textcircled{1} \quad s_m + s_{x_3} + s_{x_4} + s_{x_8} \dots \{-m-\} / -m-, \omega -am-, \omega -am-$$

cap-am-si-ni  
ka-m-si-nya  
ka~~l~~-am-si-la

$$\textcircled{2} \quad s_m + s_{x_3} + s_{x_4} + s_{x_5} + s_{x_8}$$

tat-am-si-khi- $\partial$

$$\textcircled{3} \quad s_m + s_{x_3} + s_{x_5} + s_{x_6} + s_{x_8}$$

ol-am-s-u-ka

①~④에서 분석된 /-m-,  $\omega$ -am-,  $\omega$ - $\partial$ m-은 음운론적 조건하의 이형태로서, 반드시 -4 상태 접미사와 공통적으로 배합되어서 어떤 행동, 동작이 행하여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 나가는 것을 뜻한다. /-m-, -am-, - $\partial$ m-/을 단순히 현재 진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선행하는

시간 부사에 따라 일어나는 행동의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분석된 시간 접미사의 형태소를 종합하면 {-k<sub>o</sub>-}, {-n-}/-n- ∞ -an- ∞ -ən-/, ∞ /-ss-, -ass-∞-əss-∞ yəss/ ∞ {-ϕ-}, {-m-}/-m- ∞ -am- ∞ -əm-/을 들 수 있다.

4. -4 접미사 (상태 접미사)

1) s<sub>m</sub> + s<sub>x3</sub> + s<sub>x4</sub> + s<sub>x6</sub> + s<sub>x8</sub> ..... {-si-}/-s- ∞ si-/  
sal-am-s-u-ta

2) s<sub>m</sub> + s<sub>x3</sub> + s<sub>x4</sub> + s<sub>x8</sub>  
sal-am-si-la

1), 2)에서 /-s- ∞ si-/는 동사류 어간에 직접 붙을수 없고 반드시 -3 시간 접미사와 배합하여서, 동사류 어간에 배합되어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어 주는 기능을 한다.

5. -5 접미사 (의지/추측 접미사)

1) s<sub>m</sub> + s<sub>x5</sub> + s<sub>x8</sub> (의)<sup>21</sup> {-n-}  
Ka-n-ta

2. 1. ①의 {-n-}과 동음 이형태 사이로서, {-n-}은 동작 동사에만 배합되는, 본도 방언의 독특한 의지 또는 의도, 가능성을 내포하는 형태소이다. {-n-}은 공통어의 {-kess-}과 같은 형태의 형태소로서, 화자의 앞으로 일어날 행동, 동작의 의도를 표시한다.

---

<sup>21</sup>(의) = 의지



2)  $s_m + s_{x_5} + s_{x_8}$  (의).....{-kh-}/-khi-<sub>o</sub> -kh -<sub>v</sub> -kh<sub>i</sub>-/

$s_{s_0}$ -kh-o

ka-khi--<sub>o</sub>

ha-kh<sub>i</sub>-la

3)  $s_m + s_{x_5} + s_{x_6} + s_{x_8}$

o-kh-u-ta

2), 3), 에서 분석된 {-kh-}는 동사류 어간 바로 뒤에 연결되어 주로 서술문에서는 화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나 의지를, 의문문에서는 동작주체의 의도,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능을 가진다.

4)  $s_m + s_{x_5} + s_{x_7} + s_{x_8}$  (추)<sup>22</sup>

ha-kh<sub>i</sub>-la-la

/-khi-<sub>v</sub>는 -7상 접미사 중, /-la-<sub>v</sub>/와만 배합하여서, 화자가 채 하지 못했던, 이미 지난 행동, 동작에 대한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이다.

---

<sup>22</sup>(추) = 추측

5)  $s_m + s_{x_1} + (s_{x_2}) + s_{x_5} + s_{x_6} + s_{x_7} + s_{x_8}$  (추)

$po - i - (si) - khi - P - te - ka.$

의문문의 형식으로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뜻을 지닌 발화 형식이다.

6)  $s_m + s_{x_3} + s_{x_4} + s_{x_5} + s_{x_8}$  (추)

$cap - am - si - khi - \int$

-3시간 접미사 형태소의  $\{-m-\}$ 과 -4 상태접미사 형태소 중  $\{-si-\}$ 의 연속체에  $/-khi-/$ 가 올때에는, 화자 자신이 앞으로 행할 행동에 대한 의도, 의지를 나타내고 제 3자의 현재 진행 계속되고 있는 행동을 추측하는 기능을 하지만, -3시간 접미사의  $\{-n-\}$ 과 -4 상태 접미사의 형태소  $\{-si-\}$ 의 연속체에 올때는 후자의 끝난 행동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7)  $s_m + s_{x_5} + s_{x_8}$  (의).....  $\{-l-\}$

$ka - l - la$

공통어의  $\{-kess\}$ 에 해당하는  $\{-l-\}$ 은  $\{-kh-\}$ 와는 달리 의문문에만 사용되어 질문을 받는 이의 의향을 알아 보는 기능을 가진다.

이상에서 의지, 추측 접미사의 형태소를 종합하면  $\{-n-\}$ ,  $\{-kh-\}$ ,  $\{-l-\}$ 를 얻는다.

6. -6 접미사 (겸양 접미사)

1)  $s_m + s_{x_6} + s_{x_8}$ .....  $\{-p-\}/-p-\cup-m-/\$

$mak - \int P - cu$

2)  $sm + sx_6 + sx_7 + sx_8$

si - ki - p - ne - ta

3)  $sm + sx_3 + sx_4 + sx_6 + sx_8$

ka - m - si - p - se

4)  $sm + sx_3 + sx_6 + sx_7 + sx_8$

ka - na - p - te - ka

5)  $sm + sx_1 + (sx_2) + sx_5 + sx_6 + sx_7 + sx_8$

po - i - (si) - kh - p - te - ke

6)  $sm + sx_1 + (sx_2) + sx_3 + sx_4 + sx_6 + sx_8$

ku - li - (si) - m - si - p - cu

1) ~ 6) 에서 /-p-/ 와 /-m-/ 은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i-/의 첨가와 음성 유사성상의 공명력이 작은 /-p-/가 공명력이 큰 /-m-/으로 조음점을 이동시킨 음운론적 조건하의 이형태들이다. 기본 형태소를 {-P-}로 한다.

7)  $sm + sx_5 + sx_6 + sx_8 \dots \dots \dots \{-u-\}$

o - kh - u - ta

so - kh - u - kwa

의도 추측 가능한 /-kh-/를 분석하면 /-u-/만 남는데 위의 발화는 하위자가 상위자에 대한 질의, 응답의 형태로서 {-u-}는 예의를 표시하는 형태소이다.

8)  $sm + sx_3 + sx_4 + sx_6 + sx_8$

ka - m - s - u - ta

o - la - m - s - u - ke

동작의 완료나 계속를 나타내는 /-ϕ-/와 /-m-/을 분석하면 /-su-/가 남는데 /-su-/는 다시 -4 접미사인 /-s-/와 /-u-/로 분석이 된다. 따라서 /-u-/는 {-P-}와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된다. {-P-}는 동사류 어간 바로 뒤에 올 수 있으나, /-u-/는 올 수 없는 반면에, 동명사 뒤에 연결될 수 있고, {-P-}는 동명사 뒤에 올 수 없다. 따라서 /-u-∞-P- /는 형태론적 조건하의 이형태이다. 기본 형태소를 {-P-}로 한다.

이상에서 분석된 점양 접미사를 종합하면

{-p-} /-p-∞-m- /∞ {-u-} 를 들 수 있다.

7. -7 접미사 (양상 접미사)

1) 존재상

① sm + sx<sub>7</sub> + sx<sub>8</sub> ..... {-n-} /-n-∞(-ni-, -ne-)  
ka - n - ta

② sm + sx<sub>6</sub> + sx<sub>9</sub> + sx<sub>8</sub>  
ka - p - ne - ta

공통어의 존재형태소와 별 차이 없는 형태소이다. /-n-∞(-ni-, -ne-)/는 음운론적 조건하의 이형태이나, /-ni-, -ne- /는 모음을 /i↔e/을 변화시킨 수의적 변화에 의한 이형태이다.

2) 회상상

① sm + sx<sub>7</sub> + sx<sub>8</sub>      {-a-} /(-a-∞-ə-, )∞-n- /

$$m\bar{a}k - \bar{a} - la$$

$$Pe - a - la$$

$$\textcircled{2} \quad sm + sx_3 + sx_4 + sx_7 + sx_8$$

$$m\bar{j}k - \bar{a}m - s - \bar{a}n - ke$$

$$ka - m - s - \bar{a} - la$$

①. ②에서 -7 접미사의 형태소 / (- a - s - a - ) ∞ - a n - / 은  
공통어의 / - 더 - / 와 / - 던 - / 에 해당하는 이형태들이다. / - 더 - /  
가 탈락되면서 모음조화 원칙에 따라

$$/ - \text{양성모음} - / + / - a - /$$

$$/ - - \bar{a} - / + / - \bar{a} - /$$

로 배합된다. / - a - s - a - / 와 / - a n - / 은

$$-7 / - a - s - a - / + (-8 - la / (\text{서})^{23}$$

$$-7 / - n - / + -8 / - ke / (\text{서})$$

$$-8 / - ka / (\text{의})$$

와 같이 선행하는 접미사에 의한 형태론적 조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접미사를 제한시키는, 형태론적 조건을 가진다. 기본형태소  
들 { - a - } 로 한다.

$$\textcircled{3} \quad sm + sx_5 + sx_7 + sx_8 \dots \dots \dots \{ - la - \}$$

$$ha - kh - \bar{j} - a - la$$

공통어 / - 더 - / 에 해당하는 접미사 / - la - / 는 -8 접미사가  
서술형인 { - la - } 와 배합하여, 화자와 제 3 자의 동작, 행동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의 -5 접미사중 / - kh - / 뒤에만 오는 본도의 독특

---

23 ( 의 ) = 의문형, ( 서 ) = 서술형

한 접미사이다.

$$\textcircled{4} \quad s_m + s_{x_6} + s_{x_7} s_{x_8} \dots \{ -ti - \} / ( -ti -, -te - ) \curvearrowright$$

$$( -tti -, -tte - ) /$$

$h_p - p - ti - ke$   
 $ca - p - te - ka$

$/ -te -, -ti - /$ 는 수의적 변화에 의한 이형태이다. ②의  $\{ -a - \}$ 가 동사류 어간에 바로 올 수 있는 형태소임에 반해,  $\{ -ti - \}$ 는 반드시 -6 점양 형태소인  $\{ -p - \}$ 와만 배합되는 형태론적 조건을 받는 회상 접미사의 이형태이다.

이상에서 분석된 상 접미사의 형태소들 종합하면  $\{ -n - \} / -n - \infty ( -ni -, -ne - ) / , \{ -a - \} / -a -, \{ -\infty - \} / -\infty - , \{ -l a - \} , \{ -ti - \} / ( -ti -, -te - ) \curvearrowright ( -tti -, -tte - ) /$ 를 얻을 수 있다.

### 8. -8 접미사 (종지 접미사)

#### 1) 권유형

$$\textcircled{1} \quad s_m + s_{x_8} \quad \{ -sim(\pm) \} / -sim(\pm) \quad -ssim /$$

$nol - sim$   
 $o - sim - ken$   
 $m\bar{a}k - sim$

$/ -sim(\pm) , -ssim /$ 은 부녀자들간의 동위자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종지 접미사의 이형태들이다.

$/ -sim(\pm) , -ssim /$ 은 동사류 어간 바로 뒤에 오는 접미사의 이형태들로서 음운론적 조건을 받는다. 즉  $/ -ssim /$ 은 선행 자음이  $/ -p -, -t -, -k - /$ 일 경우에만 쓰이며, 그외 모든 자음과 모음 귀해

는 / -sim(±) / 이 쓰인다.

기본 형태소를 발화의 빈도수가 높은 { -sim(±) } 으로 한다.

$$\begin{aligned}
 \textcircled{2} \quad & sm + sx_8 \quad \{ -Ke \} / -Ke -kke / \\
 & ka - ke \\
 & cap - ke \\
 & -ke / ) + \left( \begin{array}{l} \textcircled{1} - 9 / -massim / \\ \textcircled{2} - 9 / -ke / \end{array} \right.
 \end{aligned}$$

에서 ①의 경우는 하위자가 상위자에 대한 권유이며 ②은 동위자 또는 하위자에 대한 재촉의 뜻이 강한 권유가 된다. / -Ke - KKe / 는 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이형태들이 다. 기본 형태소를 { -ke } 로 한다.

$$\begin{aligned}
 \textcircled{3} \quad & sm + sx_8 \quad \{ -cu \} / -cu - ccu / \\
 & ha - cu \\
 & tat - cu \\
 \textcircled{4} \quad & sm + sx_6 + sx_8 \\
 & ka - p - cu \\
 & Sa - p - cu
 \end{aligned}$$

③에서 / hacu / 는 제 2, 3 자의 행동과 관계될 때만 권유의 의미를 가진다. 이 발화가 화자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쓰일 때는 권유의 기능보다도 의지의 기능이 우세해 진다.

$$\begin{aligned}
 & \textcircled{1} - 9 \{ -massim \} \\
 & \textcircled{2} - 9 \{ -ke \} \\
 & \{ -cu \} ) + \begin{array}{l} \textcircled{3} - 9 \{ -ya \} \\ \textcircled{4} - 9 \{ -i \} \end{array}
 \end{aligned}$$

에서 ㉠의 경우는 상위자에 대한 권유이고 ㉡은 동위자에 대한 권유이며 ㉢은 상위자 동작에 대해서 다짐하는 것이다. ㉣은 동위자 또는 하위자에 대한 확인, 다짐의 뜻을 가진다.

④에서 /-ccu/+ - 9 / { -massim } /은 상위자에 대한 존재, 권유 기능을 가진다. 간혹 - 9 / -ke /가 연결 되기는 하나 발화의 빈도가 전자보다 낮다.

③, ④에서 기본형태소를 { -cu }로 한다.

이상에서 권유형의 기능을 가지는 기본 형태소를 종합하면

① { -sim(±) } / -sim(±) ∞ -ssim /

② { -ke } / -ke ∞ -kke /

③ { -cu } / -cu ∞ -ccu /

를 얻을 수 있다.

①~③의 각 항의 이형태끼리는 음운론적 조건하의 이형태들이나 기본 형태소 사이는 서로 수의적 변화에 의한 이형태들이다.

2) 명령형

① sm + sx<sub>8</sub> { -ϕ }

pat - ρ - ϕ

ip - ρ - ϕ

② sm + sx<sub>8</sub> ..... { -la }

to - la

pppl - la

③ sm + sx<sub>8</sub> ..... { -o }

ta - o

①, ②에서 /-ϕ/가 /-la/로 됨에 따라 모음조화가 깨진다.



이 현상은 조건적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언어 습관에 따라서 생기는 결과라 할 수 있다.

③의 /tao/는 ②의 /tola/와 같은 의미를 가지나 /tola/ 형태보다 많이 쓰이지 않는다.

- ④ sm + sx<sub>8</sub> ..... { -lamun } / -lamun , -lamɪn /  
 ca-la-mun  
 ip-ɪ-la-mun  
 ka-la-mɪn

/-lamun/을 분석하면, /-la/+/-mun/이 된다.

이 /-mun/의 기능이 무엇인가가 문제이다.<sup>24</sup>

- ⑤ sm + sx<sub>6</sub> + sx<sub>8</sub> ..... { -sə } / -sə , -ssə /  
 po-p-sə  
 siki-p-sə

- ⑥ sm + sx<sub>3</sub> + sx<sub>4</sub> + sx<sub>6</sub> + sx<sub>8</sub> .....  
 ka-m-si-p-sə

⑤, ⑥이 {-p-} + {-sə}에서 {-sə}가 명령의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6점양 접미사의 형태소 {-p-}가 와야 한다. 그리고 {-sə}가 -3 시간접미사 /-ϕ-/와 배합된 때는 의문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p-}와 배합되는 {-sə}는 상위자에 대한 명령을 나타낸다.

<sup>24</sup>공통어에서 위와 비슷한 발화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먹으려무나", "자려무나" 등이 그것이다.

$$\{-s\alpha\} + \begin{pmatrix} \textcircled{1} & -9 / -k\theta / \\ \textcircled{2} & -9 / -ya\text{ㅓ} / \end{pmatrix}$$

의 경우 ①은 재촉, 명령이며 ②은 다짐을 나타낸다.

/-sα, -ssα/는 수의적 변화에 의한 이형태이다. 기본 형태소를 {-sα}로 한다.

이상에서 명령형의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소를 분석하면 {-φ} {-la}, {-lamun} {-sα}를 얻을 수 있다.

3) 의문형

$$\textcircled{1} \quad sm + sx_1 + sx_8 \dots \dots \{-nya\} / -nya, -ni /$$

$$te\text{ㅓ}ki - ni - nya$$

$$\textcircled{2} \quad sm + sx_3 + sx_4 + sx_8$$

$$cap - am - si - ni$$

$$mk - \text{ㅓ} - \phi - si - nya$$

①, ②에서 분석된 /-nya, -ni/는 수의적 변화에 의한 이형태이다. /-nya, -ni/는 공통어에서와 같이 동위자 또는 하위자에 대한 의문의 기능을 가진다. 기본 형태소를 {-nya}로 한다.

$$\textcircled{3} \quad sm + sx_7 + sx_8 \dots \dots \{-\phi\}$$

$$sim - \text{ㅓ}n - \phi$$

$$ka - n - \phi$$

{-φ}은 공통어의 "~니?"와 유사한 의미로 반드시 회상 형태소인 {-a}중 /-an-, -ㅓn-/과 배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한다. ③의 발화형태는 발음경계에 의한 ②의 축소형이다. 의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본도에서는 두 형태 모두 혼용한다.

$$\textcircled{4} \quad sm + sx_3 + sx_8 \dots \dots \dots \{ -na \}$$

he - m - na

{ -na } 는 반드시 -3 시간접미사와 배합되어 화자의 상대편의 동작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textcircled{5} \quad sm + sx_7 + sx_8 \dots \dots \dots \{ -ta \} / -ti, -ta, -tya, -ka$$

-ko, -ku /

po - an - ta

ol - an - ti

ka - n - ko

mək - ən - ka

/ -ti, -ta, -tya / 는 -7 상 접미사와 배합되어 화자가 청자에 대한 회상, 의문의 형태를 취하지만 / -ka, -ko, -ku / 는 화자 자신이 행동의 주체인 제3자의 행동, 동작에 대한 회상 및 의문으로 나타난다. / -ti, -ta, -tya, -ka, -ko, -ku / 는 병행 구조 내에서의 수의적 변화에 의한 이형태들이다.

기본 형태소를 { -ta } 로 한다.

$$\textcircled{6} \quad sm + sx_3 + sx_4 + sx_7 + sx_8 \dots \dots \dots \{ -ka \} / -ko, -ka$$

-ku /

cis - əm - si - n - ka

ka - ϕ - si - n - ko

⑤에서 { -ta } / -ti, -ta, -tya, -ko, -ka, -ku / 는 수의적 변화에 의한 이형태라고 하였으나 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합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 -ti, -ta, -tya / 와 / -ko, -ka, -ku / 는 형태론적 조건을 받는 상보적 분포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 -ta } 가 -3 시간접미사와 -4 상태접미사의 연속체와는 배<sup>30</sup>합할 수 없으나, /-ka, -ko, -ku/는 -3 시간접미사는 물론, -4 상태접미사와의 연속체와 -7상 접미사에 이어지는 배합 범위가 넓은 형태이다. 따라서 { -ta }와 /-ka, -ko, -ku/는 별개의 단일 형태소를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 -ka }를 기본 형태소로 한다.

$$\begin{aligned} \textcircled{7} \quad s m + s x_3 + s x_8 \dots\dots\dots \{ -kko \} \\ \text{he} - s - kko \\ \text{ka} - s - kko \end{aligned}$$

반드시 -3 시간 접미사인 /-s-/와 배합될 때에만 나타나는 형태소로서, 화자의 상대편의 이미 끝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의문뿐 아니라, 제 3자의 끝난 행동을 상대방에게 물어 보는 경우의 발화이다.

$$\begin{aligned} \textcircled{8} \quad s m + s x_5 + s x_8 \quad \{ -la \} / -ti, -tti, -thi, \\ -tha, -thya, -la / \\ o - l - ti \end{aligned}$$

위의 이형태들은 상대편의 앞으로 일어날 행동에 대한 의도를 물어 보는 의문문에만 쓰이는 것으로 본도 방언 중의 독특한 형태이다. 모두 수의적 변화에 의한 형태소들이지만 이 형태들을 배열하고 보면 한국어 자음 체계중 치경음의 동계열상의 조음 방법을 교체하는 규칙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 형태소를 가장 광범위한 분포로 쓰이는 { -la }로 한다.

$$\begin{aligned} \textcircled{9} \quad s m + s x_5 + s x_8 \dots\dots\dots \{ -o \} / -o, -u, -a / \\ sso - kh - o \\ he - kh - u \end{aligned}$$

수의적 변화에 의한 이형태들로서 화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독백형의 의문이다. /-o, -u, -a/가 서로 넘나들어 모음조화가 깨진

현상이다. 기본 형태소를 { -o }로 한다.

$$⑩ \quad sm + sx_3 + sx_4 + sx_8 \quad \{ -\emptyset \}$$

$$ca - m - s - \emptyset$$

$$ka - \emptyset - s - \emptyset$$

⑨ 3 시간 접미사중 미완료인 { -m- } 과 배합될 경우는 상대편의 계속적인 동작, 행동에 대한 의문이 되고, -3 시간접미사가 완료인 /-∅-/와 배합할 경우는 제 3자의 이미 끝난 행동을 화자 자신이 나 상대방에게 물어 보는 형식이다. -4 상태접미사의 /-s-/와 배합되는 의문형 형태소이다.

$$⑪ \quad sm + sx_6 + sx_7 + sx_8 \quad \{ -kka \} / -ka, -kwa, -kka, \\ -kkwa\bar{s}, -ka\bar{s}, -kka\bar{s} - kw\bar{s} /$$

$$he - p - ti - ka$$

$$⑫ \quad sm + sx_5 + sx_6 + sx_8$$

$$ka - kh - u - kwa$$

$$⑬ \quad sm + sx_3 + sx_4 + sx_6 + sx_8$$

$$ca - m + s - u - kka$$

⑪~⑬에서 분석된 이형태들은 수의적 변화에 의한 이형태들로서 본도 방언의 독특한 의문 접미사의 이형태들이다. 본도에서는 현재 /-kka, -kkwa/ 보다는 /-ka, -kwa/의 쓰임이 우세하나 동북부 지방과 동사가 동명사화하여 굴절할 때, 즉 /kamsukwa/는 /kamikkwa/로 /-kwa/가 /-kkwa/로 발화된다. 또한 /-kw\bar{s}, -kkwa\bar{s}, -ka\bar{s} -kka\bar{s}/는 별로 쓰이지 않고 있다. 가장 발화 빈도수가 높은 { -kka }를 기본 형태소로 한다.

이상에서 분석된 의문형의 형태소를 종합하면 { -nya } / -ni /, { -∅ }, { -na }, { -ta } / -ti, -tya /, { -ka } / -ko, -ku /, { -la } / -ti, -tti, -thi, -tha, -thya /, { -o } / -u, -a /, { -∅ }, { -kka } / -ka, -kwa, -kkwa, -ka\bar{s}, -kka\bar{s}, -kkwa\bar{s} /, { -kko }를 얻는다. ①-⑩은 서로 상보적 분포관계에 있다.

## 4) 서술형

①  $sm + sx_8$  ..... {-me}

na-me

동위자 사이에 사용하는 애교적인 발화로서 긍정을 나타내는 서술 형태소이다.

②  $sm + sx_1 + sx_8$  ..... {-la} /-laoo-e/

ka-a-la

ka-la-la

ma-k-n-e

/-la/는 -7 양상 접미사가 /-a-, -ə-/일때만 오고 /-e/는 -7 상 접미사가 /-n-/제통때만 오는 형태론적 조건하의 이형태들이다. {-la}를 기본 형태소로 한다. {-la}는 -7 상 접미사와만 배합한다.

③  $sm + sx_7 + sx_8$

ka-t-e

④  $sm + sx_3 + sx_4 + (sx_7) + sx_8$

th-m-si-(ni)-e

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는 -7 상 접미사가 /-n-, -ni-, -t-/일 때만 연결되어 동작 주체의 동적 상태를 상대방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④의 배합형태에서는 /thəmsinye/가 /thəmse/로 -7 접미사를 축약시키는 형태의 발화를 쓰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4 상태 접미사가 배합되어 있을 때이다.

⑤  $sm + sx_3 + sx_4 + sx_5 + sx_8$  ..... {-ə} /-yaoo-ə/

cap-am-si-kh-i-ə

{-ə}는 반드시 -5 의지 추측 접미사인 {-kh-}와 배합하며 화자의 행동에 대한, 의도, 의지의 뜻이 내포된 서술 형태소이다. /-i-/가 축약되어 /capamsikhi<sup>+25</sup>/가 /capamsikhyə/로 음절 경계가 변동된, 음운론적 조건하의 이형태이다.

⑥ sm + sx3 + sx8 ..... {-ccə} / -ccə, -ccyə

cu, -ccu, -cə/

k l-am-ccə

po-as-ccyə

공통어의 {-다}에 해당하는 이형태들로서 -9 / -ke /가 배합되면 확인, 강조의 뜻을 지니게 된다. 각 이형태사이는 수의적 변화에 의한 것이며, 발화 빈도수가 높은 {-ccə}로 한다.

⑦ sm + sx3 + sx4 + sx1 + sx8 ..... {-ke} / -ke, ∞-kke /

kat-am-si-n-ke

⑧ sm + sx3 + sx4 + sx6 + sx8

ip-am-s-u-kke

⑨ sm + sx1 + (sx2) + sx5 + sx6 + sx7 + sx8

po-i-(si)-kh-ip-ti-ke

/-ke, -kke /는 화자나 제 3자의 계속되고 있는 행동이나 동작을 상대방에게 확인시키는 형식이다. ⑧의 경우는 /-ke, -kke /는 수의적 변화에 의한 이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⑦, ⑨에는 /-kke /가 올 수가 없다. 이를테면, -6 겸양 접미사가 {-u-} 일 때는

/-kke/가 나타날 수 있으나 -7 상 접미사 뒤에 올 때는 /-ke/만 실현되는 형태론적 조건하의 이형태라 할 수 있다.

⑩ sm + sx<sub>6</sub> + sx<sub>7</sub> + sx<sub>8</sub> ..... {-ta}

kə1 - ip - ne - ta

{-ta}는 긍정 서술형으로 쓰이는 형태소이다.

이상에서 분석된 서술형 형태소를 종합하면 {-me}, {-la} /-la co -e /, {-ce} /-cə, -cə, -ccyə, -cu, -ccu/ {-ke} /-ke co -kke /, {-ə} /-yə co -ə /, {-ta} 등을 얻는다.

#### 9. -9 접미사 (첨사)

1) {-massim} /-massi, -massi, -massim, -massim /

/məkikha / + {-massim} ..... 의문 (존대)

/lake / + {-massim} ..... 재촉권유

/musikə / + {-massim} ..... 의문

/həpccu / + {-massim} ..... 확인

동위자 사이에서 사용하는 어법 중 권유, 서술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에 연결되어, 상위자에 대한 재촉, 확인,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절종결 (clause terminals) /A/을 동반한다.

2) {-yaḥ} /-ye /

/məkipccu / + {-yaḥ}

/cipila / + {-yaḥ}

상위자에 사용되는 권유형 중, /-cu / 뒤와 명령형과, 동위자 사이에 사용되는 서술문 뒤에 연결되어 다짐의 뜻을 나타낸다. 절종결 /→/을 동반한다.



## 3) {-i}

/cala / + {-i}

/kake / + {-i}

동위자 및 하위자에 사용되는 명령, 서술, 권유분 다음에 붙어 역시 다짐의 뜻을 나타낸다. 역시 절종결 /→/을 동반한다.

## 4) {-ke} / -ki, -kye /

/kake / + {-ke}

/hūpssə / + {-ke}

/simīla / + {-ke}

의문형을 제외한 모든 형에 붙어 확인, 재촉의 뜻을 나타낸다. 상하관계 모두 사용되는 가장 보편화된 형태소이다. 절종결 /→/을 동반한다.

## V. 결 론

본론에서 제주 방언의 동사류 어간에 배합되는 굴절 접미사의 형태소를 분석 검토하였다.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해 보고자 한다.

1. 공통어에서 동사류 어간 바로 뒤에 오는 강조 접미사가 본도 방언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며, -2 접미사에 해당하는 태 접미사가 온다. 태 접미사의 형태소 중 /-l-/이 /-c-/로, /-h-/가 /-c-, -cc-/로 /-k-/가 /-c-/로 조음점을 이동시킨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2. -3 시간 접미사의 형태소 중, 공통어의 {-ss-, -ass-}에 해당하는, 완료시간 형태소로 {-ko-}가 보이며, 상위자에 대한 발화에서 완료시간 형태소인 {-s-}가 {-ϕ-}로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완료 형태소로 {-m-} / m-∞-əm-∞-am /, 완료 형태소로 {-n-} / -ϕ-∞ (-as-∞-əS) ∞ (-n-∞-ən-∞-an) / 등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3. -4 상태 접미사는, 공통어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동작 행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독특한 형태소로서, '고 있다'의 /-잇-/에 해당하는 {-si-}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어의 잔존 형태로 보고자 한다.

4. -5 의지, 추측 접미사의 형태소로, 공통어의 시제 접미사의

속하는 {-kess-}에 해당하는 {-kh-}와 {-l-}이 있다. {-l-}은 15세기 국어의 잔존 형태로서, 본도에서는 의문문에만 쓰여서, 상대방의 앞으로 취할 행동에 대한 의도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8 접미사의 의문 형태소인 /-ti, -ta/와 연결되어 다시 한번 15세기 국어 형태의 잔존임을 확인해 준다.

5. -6 접양 접미사의 형태소로 {-p-}와 {-u-}가 보인다. 이들은 형태론적 조건하의 이형태로서, {-u-}의 쓰임은 본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6. -7 상접미사 중 회상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a-} /-a - /가 사용되어, 공통어의 {-더-}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상위자에 대한 발화로서 /-c- / 계통의 회상 형태소인 {-ti-} / -ti, -te -tti, -tte -/ 등이 쓰인다.

7. -8 종지 접미사 중의 의문형에 /-ia, -ta, -ti/ 등 현대어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독특한 이형태들이 있는가 하면, {-s}가 있어, 반드시 접양 접미사 {-p-}와 연결되어 상위자에 대한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것 역시 15세기 국어의 "...쇼셔."형의 잔존 형태가 아닌가 한다.

8. -9 접미사로 첨사를 들 수 있다. 이 첨사에는 본도 방언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형태소들이 있다. {-massim}은 공통어의 '...합니까, ...합니다, ...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위자 사이에 사용되는 종지법 접미사에 덧붙여, 의문형을 동반하기도 한다. 상위자에 대한 경어로 쓰인다. {-ya5}의 쓰임도 {-massim}과 마찬가지로

이나 뜻은 다짐을 나타내고, 하위자에 대한 다짐으로는 {-i-}가 쓰인다. 상하 관계 두루 쓰이는 것으로 {-ke}가 있어, 이는 권유 명령 문위에 연결되어 재촉의 뜻을 나타낸다.

이 외에 공통어에 대한 시제, 시상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본도 방언의 독특한 사상체계가 있다. 공통어에서는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접미사의 배합에 따라 시제가 결정이 되었으나, 본도 방언에서는 다른 순위의 접미사가 서로 배합하여야만 시상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형태소 분석에 그친 본 연구에서는 논 외로 하였으나, 이 문계에 대한 연구가 하루 속히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 부록 1

< 제주 방언의 동사류 어간에 배합되는 굴절 접미사 순위. 및 배합유형 >

차 례	명 칭 어 간	순위							- 8				- 9			
		- 1	- 2	- 3	- 4	- 5	- 6	- 7	종 지 접미사				첨 사			
		태 접 미 사	주 접 체 미 존 태 사	시 간 접 미 사	상 태 접 미 사	의 접 지 / 미 추 측 사	결 양 접 미 사	상 접 미 사	서 술	의 문	명 령	권 유	{- na se-tu}	{-ya s}	{-ke}	{-i}
1											+					
2											+	+	+	+	+	
3														+	+	
4														+	+	
5														+	+	
6								+			+				±	
7								+			+				±	
8									+			+	+	+	+	
9									+				+	+	+	
10	sm								+		+				+	
11									+		+				+	
12										+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31											+			±	±	
32											+			±	±	
33											+			±	±	
34											+			±	±	
35											+			±	±	
36											+			±	±	

부록 2

< 제주 방언의 동사류 어간에 배합되는 굴절 접미사의 형태소 >

순위 명칭 어간	- 1	- 2	- 3	- 4	- 5	- 6	- 7	- 8				- 9
	태 접 미 사	주 존 대 접 미 체 사	시 간 접 미 사	상 태 접 미 사	의 접 지 /미 추 측 사	결 양 접 미 사	양 상 접 미 사	종 지 접 미 사				첨 사
								권유	명령	의문	서술	
sm	{-u-} {-chi-} {-li-} {-i-} {-ku-} {-ci-} /-ci- -cci- /	{-si-}  /(-n- -an- n-) ∞(-ss- -əs- -ass- ) ∞-yə ss-/∞{ -φ-} {-m-} /-m- -am -ə-ə m- /	{-ko-} {-n-} /(-n- -an- n-) ∞(-ss- -əs- -ass- ) ∞-yə ss-/∞{ -φ-} {-m-} /-m- -am -ə-ə m- /	{-si-} /-s- -si- /	{-kh-} /-kh- -khi- ∞ -khe (-l-) (-n-) (-c-)	{-p-} /-p- -m- /	{-n-} /-n- (-ni- -ne- -) /-a- -ə -) ∞ -n- /	{-sim (+) -sim+ -ssi- -ke- -a- -ke- -cu- -ccu- /	{-φ-} {-la} /(-lan un) {-sə} /-sə, -ssə /	{-nya} /-nya, -ni / /(-lan un) {-na} {-ta} -ti, -tya / {-ka} /-ka, -ko, -ku / {-la} /-ti- -tti- -thi- -tha- -thya -la / {-o} /-o, -u, -a / {-ə} {-kka} /-ka, -kwa, -kkwa -kaə, -kkaə, -kwaə / {-kko}	{-me} {-la} /-la ∞-e / {-ə} /-yə -ə / {-ccə} /-ccə -ccyə -cu, -ccu, -cə / {-ke} /-ke ∞-kke / {-ta}	{-mass +m} /-mass i, -m ass+ -masi m, -mas+m / (-yaə) /-ye, yaə / {-ke} /-ke, -ki, kye / {-i}

## 부록 3 .

## &lt; 질 문 지 내 용 &gt;

## 표 준 어 방 언

1. 아침 잡수셨습니까?
2. 먹는둥 마는둥 했다.
3. 땅에 묻힌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4. 미친개에게 물려서 죽었다.
5. 붙잡히겠소. 잘도 잡졌다.
6. 여기 붙었었는데 누가 빼어 갔나 봐.
7. 밥상 치우지 말고 기다립시다.
8. 쌀과 보리를 섞어 먹읍니다.
9. 너무 많이 실고 가다간 들킨다.
10. 산에 나무 심으러 가자.
11. 어디를 짚으면 됩니까.
12.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13. 물건을 집으면 올려 놔야지요.
14. 찢긴 소매 사이로 살이 보인다.
15. 어디서 뜯겼나?
16. 못에 또 깔릴까요?
17. 할머니 졸던 토끼가 뛰어다녀요.
18. 목을 조여라.
19. 저절로 젖은 거예요. 신거예요.
20. 그렇게 주둥이로 쏘았으니 구멍이 나지.

21. 고기 탄다 . 얼른 꺼내라 .
22. 배급 준대요 . 곧 오시랍니다 .
23. 숙 태우지 말아라 .
24. 8월이면 이삭이 패일걸 .
25. 사면서 들으니끼 굉장하더군 .
26. 먹다가 보니까 미안합니다 .
27. 왔다 갔다 뭐했니 ?
28. 왔다 갔다 뭐하세요 ?
29. 누가 불을 살렸어요 .
30. 너무 길게 잘라 버린다면 자른 것 같지도 않겠다 .
31. 언제쯤 떠나시겠습니까 ?
32. 남을 속이면서까지 산 사람이다 .
33. 얼마나 많이 속였을까 ?
34. 어디서 오십니까 ?
35. 물 쏟아진다 . 구멍이 뚫렸어요 .
36. 개가 짖는데요
37. 이력저력 지냈습니다 .
38. 그새 날려 보냈니 ?
39. 실이 너무 꼬여서 풀리겠느냐 ?
40. 차에 치인 것이 누구입니까 .
41. 많이 읽으면 알게 되겠지요 .
42.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
43. 흥기가 많이 풀렸구나 .



44. 멍들었군 누가 꼬집었죠?
45. 이런데 꼬집히면 아프단다.
46. 잘 고여라 옆으로 쓸어질라.
47. 비가 그치려고 합니다.
48. 날이 저물면 밤이 오겠지.
49. 빨래를 널더라도 잘 널어야지요.
50. 책장을 넘기면서 밥을 먹는다.
51. 돼지고기는 연기에 그을려서 저장하십시오.
52. 밖에 나가 놀다가 오너라.
53. 놀면서 보니까 대문이 열렸더라.
54. 애들 놀리면 성적 떨어진다.
55. 잡았다가 놓쳤어요.
56. 너무놀려서 납작해졌다.
57. 누가 물을 누르라고 했지요?
58. 환자를 가만히 눕혀주세요
59. 얼마나 썼던지 많이도 알았군.
60. 다물면 중간이나 되지.
61. 이문 누가 닫았습니까?
62. 저절로 닫혔어요.
63. 조용히 앉으세요.
64. 밥았허라.
65. 물은 언제 엄니까?
66. 11월 되면 얼것입니다.



67. 아마 잘 알겠소.
68. 얹히고 설켜서 원.
69. 옆집에서 외는 소리가 뭐지?
70. 땅을 일구면 씨를 뿌릴 텐데.
71. 몇시부터 자니?
72. 8시부터 잔다.
73. 간장은 몇월에 답습니까?
74. 공을 너무 빨리 굴리지 마세요.
75. '굴리시지 마십시오' 라고 하세요.
76. 어제는 너무 빨리 굴리셨었거든요.
77. 닭은 때 굼기지 말고 제때 곡식을 주어라.
78. 할머니님이 굼으셨더군.
79. 제가 굼겼어요? 당신이 안잡수시겠다고 하십니다.
80.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81. 잘 보이나.
82. 아니, 그저께는 잘 보였었는데, 지금은 잘 안보여.
83. 가만히 봐, 잘 보일 거야.
84. 뭐 보세요.
85. 우리 아기 봤어요? 아니.
86. 할아버지 책 보신다.
87. 지금 영희가 책을 본단다.
88. 책을 보니까 조용히 하라구요.
89. 언제부터 봤는데요.
90. 아까부터 봤지.

91. 병을 깨뜨렸으니 어떻하지.
92. 내가 깬다고 그러지 마.
93. 이 병 누가 깬나 봐요.
94. 작년엔 철수가 깨더니.
95. 올해는 영희가 깨뜨렸구나.
96. 구름이 걷히는구나.
97. 빨리도 걷힌다.
98. 잠을 너무 일찍 깨우지 말걸 그랬지.
99. 아니요, 빨리 깨워서 함께 데리고 가려구요.
100. 아버님 잠 깨셨어요.
101. 아니다, 깨시면 찬불 가져다 드려라.
102. 옷이 벽에 걸렸으니까.
103. 입혀 드려라.
104. 아기도 윗옷은 갈아 입히세요.
105. 어떻게 걸렸니?
106. 불심저를 좀더 늘려라.
107. 화 돌구지 마.
108. 바지는 뒤집어서 빨아야 합니다.
109. 옷이 뒤집혔어요.
110. 이야기 듣다가 나가 버렸어요.
111. 손에 뭐좀 들려 보냈어요?
112. 짐을 맡겼을지라도 다짐을 꼭 했어야지.
113. 냄새를 맡으면 맡을수록 좋거든.

114. 창에 잡시다 .
115. 집에 가지겠어요 .
116. 아까 내가 갔었는데 또 왔어 .
117. 가겠습니다 .
118. 그만 가지 .
119. 돈 많이 벌었죠 ?
120. 너의 소 어디 있니 .

## 참 고 문 헌

- 강 윤호 (1959), '제주도 방언에 있어서의 공통어제 어휘의 음운체계와 그 환경에 대하여,' 「이대 논총」, 제 1 호, pp. 114-41.
- 고 영근 (1967), '現代國語의 先語末語尾에 대한 構造的 研究: 特別批列의 차례를 中心으로,' 「어학 연구」, 제 3 권, 제 1 호,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pp. 51-63.
- 김 석득 (1967), '국어 형태론,' 「연세 논총: 인문과학편」, 제 4 호, 1-46.
- 박 창해 (1964), 「한국어 구조론 3」, 서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이 규호 (1975), 「말의 힘: 言語哲學」, 증보 2 판, 서울: 제일출판사.
- 이 승녕 (1951), '濟州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國語學 論叢」, 學述論叢書, 제 2 권, 서울: 동양출판사, 4293[1960], pp. 279-392.
- (1970), 「中世國語文法」, 서울: 을유문화사.
- 전 재관 (1958), 「『습 따위』 敬讓詞散考」, 「경북대 논문집」, 제 2 권, 대구: 경북대학 출판부, pp. 1-23.
- 현 영호 (1974), '濟州方言의 定動詞語尾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Bull. W. E. (1968), Time, Tense, and the Verb, 3rd ed., UCPL Vol. 1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leason, Jr., H. A. (1964),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rev. ed.,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Hall, Jr., R. A. (1963), 「言語学序說」, 강 운호 (역), 서울: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Nida, E. A. (1964),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Ramstedt, G. 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Suomalais  
— u grilainen seura

〈資 料〉

박 용후 (1960), 「제주 방언 연구」, 제주: 동원사.

진 성기 (1968a), 「南國의 巫歌」, 제주: 濟州民俗文化研究所.

(1968b), 「南國의 民謠」, 제주: 濟州民俗文化研究所.

현 영호 (1962), 「濟州道 方言研究: 第一輯 資料篇」, 서울: 정연사.

제주대학교어국문학회 (1972), 「国文学報」, 제주: 한일문화사.

## ABSTRACT

Language differ with the various levels such as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We can see a language from that can be spoken by social and geographical difference. Regional Variation has certain connection with geographical differences. A special peculiarity of language can be divided into three areas - point area, transition area, and marginal area. We can call the peculiarity as dialect.

This study is intended to study inflectional final ending suffixes of verb-class word of Cheju dialect. To proceed the study, comparative methods were used to analyze the suffix morphemes, standard and Cheju dialect.

Analyzed dialectal morpheme lists are as follows:

-1 suffix (voice suffix)

Morphemes: {-u-}, {-li-}, {-ci-},  
 {-chi-}, {-i-}, {-ku-}

conditioning: each morphemes are morphologically conditioned in complementary distribution (CD).

-3 suffix(time suffix)

time perfect morphemes: {-ke-}, {-n-}

conditioning: /-n- -an- -ən-/ are phonologically conditioned and /(-n- -an- -ən-)<sub>x</sub>-∅-/ are morphologically conditioned in CD.

time imperfect morphemes: {-m-}

conditioning: /-m- -am- -əm-/ are phonologically conditioned in CD.

time perfect morphemes and time imperfect morphemes are in CD.

- 4 suffix(state suffix)

morphemes: {-si-}

conditioning: /-s- -si-/ are morphologically conditioned in CD.

- 5 suffix(prospective suffix)

morphemes: {-kh-}, {-l-}, {-n-}

conditioning: each morphemes are morphologically conditioned in CD.

- 6 suffix(honorific suffix)

morphemes: {-u-}, {-p-}

conditioning: each morphemes are morphologically conditioned in CD.

- 7 suffix(aspect suffix)

morphemes: {-a-}, {-la-}, {-ti-}

conditioning: {-a-} is phonologically conditioned



and {-ti-} is optional variation in CD.

- 8 suffix(final ending suffix)

morphemes: {-cu-}, {-ta}, {-kka}, {-me}, {-ke}, {-la}

conditioning: each morphemes are morphologically conditioned in CD.

- 9 suffix(added form)

morphemes: {-massim}, {-ya}, {-ke}, {-i}

conditioning: each morphemes are in CD.